

겨레에게 줄 가장 훌륭한 선물

주체61(1972)년 5월 26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미국의 《뉴욕 타임스》지 기자들을 만나시었다.

미국기자들이 평양에 체류하고있을 당시 국내외정세는 조국통일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60(1971)년 4월에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남조선의 제 정당, 사회단체인사들과 인민들에게 8개 항목의 통일방안을 담은 호소문을 내보내도록 주도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북과 남을 비롯한 온 겨레의 전폭적인 지지를 불러일으킨 8개 항목의 통일방안제시도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조국통일의 열망이 더욱 세차게 끓어오르고있었다.

다음해 5월에는 북과 남 사이에 고위급정치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온 민족의 통일열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의 《뉴욕 타임스》지 기자들이 평양에 찾아온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뉴욕 타임스》지 기자들은 그이께 여러가지 질문을 드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하여 자세하고도 명백한 대답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철한 가르침을 받고난 기자들은 그이께 인민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무엇인가고 하였는데 그것은 조국의 통일입니다.

조선민족은 한민족을 이은 단일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아직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여 우리 민족은 갈라져 살고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라고

고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에선 분렬의 역사를 끝장내고 통일된 조국을 우리 겨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자신의 가장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시며 조국통일을 기어기 이룩하시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통일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들으며 《뉴욕 타임스》지 기자들은 김일성주석이사마말도 민족의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위대한분위이사라는것을 더욱 깊이 느끼었다.

조국통일을 가장 절박하고 중대한 민족사적위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여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우리 겨레는 깊이 깊이 전해가고있다.

본사기자 최광혁

통일을 불러

지옥의 감방안에서 수십년을 원수들의 악행에 시달리면서 통일신념을 굽히지 않은 비전향장기수들은 공화

국의 품에 안기어서도 의로운 통일활동을 계속 벌리었다. 비록 시인은 아니지만 통일의 길에 한점 빛을 더해 줄 좋은 시들을 써내 우리 겨레를 고무하였다.

박문재도 그들중 한사람으로서 수

십년을 지옥의 감방안에서 모진 악행에 시달리면서도 전항서를 쓰지 않았던 깨끗한 그 손으로 시 《통일성업에 나서자》를 창작하여 발표하였다.

본사기자 전명진

(시)

통일성업에 나서자

비전향장기수 박문재

사람들이여
부디 이 말을
무심히 대하지 마시라
《분렬》이란 두 글자속에 들어
있는
갈라진 민족의 비극을
그대들은 잊지 마시라

조국통일성업에 청춘을 바친
장한 아들들
사상 《전향》에 불복한
죄 아닌 《죄》로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진 청춘들...

철창속에 갇혀
원수들의 증세기적고문으로

끝날같은 청춘들이
불구가 되고 폐인이 되고...

몰아보자 사람들이여
수수천년 한피줄을 나눈 우리
민족이
어이하여 이런 비극을 겪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갈라진 강토를 그려내고
피눈물 흘리며 땅을 쳐야 하는가

대대손손 이 땅에
태를 묻고 살던 우리 민족
외세의 칼부림에
두동강나 몸부림치는데
민족의 아들 우리가 어찌
참고 보고만 있을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몸에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거든
단군민족의 넋이 살아있거든
해외에 있던 남에 있던
합있는 사람은 합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하나의 강토 하나의 민족을 위한
통일성업에 나서야 하리

통일은 애국 분열은 매국
우리 민족모두가
민족의 태양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 령도따라
통일성업에 떨쳐나서자

(2001년 창작)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통일론의의 금지를 반대배격하여

남조선에서 범법적인 《한일회담》과 《한일협정》을 반대배격하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대중적인 투쟁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 박정희매국 《정권》은 파쇼화정책을 더욱 강화하려는 출로를 찾아보려고 미친듯이 발악하였다.

군사파쇼당당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의 넋리를 짓밟으면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북침전쟁준비에만 광분하였다. 특히 반공소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벌리면서 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강경로 말살하였으며 역사를 료레없는 파쇼정보통치를 실시하였다.

매국도당의 파쇼적공세가 날로

강화되는 속에서도 남조선인민들은 굴함이 없이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었다.

남조선의 광범한 사회계는 박정희매국도당이 70년대 후반기에 가서나 통일을 논의할수 있다고 하면서 취한 통일론의 금지조치를 견결히 반대배격하면서 그것을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열화같은 요망을 배신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하는 도피행위》, 《통일보다 분렬을 영구화하려는것》이라고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통일문제는 《민족의 넋리, 당면과제로 언제나 부단히 논의되고 추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외세와 그 앞

잡이들이 분렬정책의 방패로 삼고있는 《유연감시하의 통일안》이라는 것을 한결같이 배격하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망상으로 락인하였으며 출로는 민족의 자주적협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광범한 언론계도 《통일문제를 막연하게 타의에 맡겨버릴것이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게 자주성을 살려 추진성있게 이끌고나가야 한다.》, 《통일문제 강대국들에 의하여 처리될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민주주의의식을 높여 통일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이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 《민주주의세력의 형

성이 빠르면 빠른수록 통일에로의 길은 가까와온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지향이 양양되는 가운데 정계에서는 《가장 실현가능성이 있는 통일방안》은 《남북이 공동으로 제안 수락하는 통일안》이라고 하면서 북과 남이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통일로 한결음한걸음 접근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울려나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남조선에서 사대매국세력, 반통일세력에 맞서는 민족자주세력, 통일력량의 힘이 날로 더욱 장성강화되고있음을 보여주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통일투쟁의 앞장에 선 북남의 로동자들(2004년 5월)

공화국의 품에 안겨

성악재능을 마음껏 꽃피운 광복있는 너가수

1930년대초의 어느날 서울에서 열린 여자중학생들의 전국적인 성악콩쿨무대에 13살 난 소녀가 출연하여 노래를 불렀다.

쌍테머리의 어린 소녀가 부른 노래는 전문가수들도 형상하기 힘들어하는 이말리아가요 《오 나의 태양》이었다.

오 밝은 태양 너 참 아름다
담다
목동이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
피아노소리에 맞추어 울리는 청아한 노래소리에 관중들은 대변에 심취되고말았다.

노래가 끝나자 심사원들도 경연참가자들도 놀라운 재능을 보여준 나이 어린 소녀에게 야깁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나라없던 그 세월 삶의 어둠을 밀어내고 앞날을 밝게 비추는 해님이 그리워 애타게 《오 나의 태양》을 부른 소녀는 후날 재능있는 너가수보다 자라난 권원한이었다.



권원한선생

위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다니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그리고도 어쩔수가 없어 학교를 중퇴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권원한의 인품과 목소리를 아깝게 여기던 우사 김규식선생의 녀동생인 김계석이 그를 양말포 삼아 학교를 겨우 졸업할수 있었다.

1944년 학교를 졸업한 권원한은 친구의 소개로 중국 동북에 건너가 심양의 선린녀중학교에서 음악교원이 되였지만 폐망을 앞두고 온 동북땅을 피하다가 잡고어버린 일제의 만행에 몸서리를 치며 이듬해에 다시 서울로 나오며 말았다.

해방이 되자 권원한은 한성중학교 음악교원으로 있으면서 서울교향악단 독창가수로 일약 무대에 나서게 되었다.

여기저기서 권원한에게 가곡의 주역을 맡아달라고 청탁하는 속에 《동백꽃아가씨》, 《춘향전》을 비롯한 여러 가곡들에 주역으로 출연하게 되었다.

서울시민들은 권원한이 출연하는 가곡을 보기 위해 시공관(극장)으로 밀려가곤 하였고 그가 거리에 나서면 《미인가수》를 구경하겠다고 떠돌아다니곤 하였다.

하지만 외세에 짓밟은 남조선땅에서 참다운 예술에 대한 그의 갈망은 꽃피나기 힘들었다.

거리거리에서는 인민위원회 회관들이 내리워지고 어제의 친일매국도들이 제세상인듯 돌아치고있었다.

참다운 예술을 갈망하는

뜻있는 문예인들이 하나, 둘 북방길을 택하였다.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시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자기들의 운명을 맡기려는것이였다.

이때부터 권원한도 김일성장군님을 몸서림호모하게 되었으며 공화국에서 불리우는 노래들을 조용히 배워보곤 하였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서울이 해방되자 권원한은 온 겨레에 달려나가 노래를 불렀다.

언제나 마음속으로 불리던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였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
암록곡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
우에
력력히 비추주는 거룩한
자옥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그토록 해빛을 갈망하던 너가수가 해방된 서울거리의 한복판에서 가슴속에 끓어넘치는 격정을 터쳐 목청껏 태양송가를 부른것이였다.

권원한은 해방된 서울의 가는 곳마다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 무대가 따로 없었다. 강당에서도 부르고 큰길가에서도 불렀다.

이름있는 가수가 심장으로 부르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에 매혹되어 김장군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학생들은 책방방을 멘채로, 로동자들은 밥판을 멘채로 용약 인민군대에 원한해나섰다.

후날 권원한은 그때를 돌이켜보며 자기의 예술활동이 날에 그때처럼 열렬한 청춘을 가져본적이 없었다고 토로하였다.

당시 권원한은 남조선음악가동맹에서 활동하다가 전선지구경비사령부부현주단(당시)에 망라되어 녀성성악조를 책임지고있으면서 전선과 해방지구들을 돌며 순회공연을 벌리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권원한은 조금도 주저없이 북방길을 택하였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도, 겨레의 밝은 앞날도 오로지 위대한신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길 때에만 꽃피날수 있다는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기때문이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은 간고하고 넘어야 할 험한 산도, 건너야 할 강도 많았지만 너가수는 승리의 신심에 넘쳐 굴함없이 길을 걸었고 허기진 배를 조이며 공연을 또 또 보강하였다.

그후 그와 일행은 국립예술극장(당시)에 소환되었다.

그가 아버지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 뵈은것은 1950년 12월 23일이었다. 그 날 그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 축하공연에서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노래를 부르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노래가 끝나자 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곁에 있던 일군들에게 노래를 잘한다고, 처음 보는 가수인데 어서 온 동무인가고 물으

셨다.

남반부에서 온 가수인데 서 울이 해방되었을 때 우리한테 왔다는 그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동무라고, 이런 배우는 어디서 찾으려고 하셔도 찾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남반부에서 들어온 작가, 예술인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었다.

이때부터 실음속에 해님을 그리며 노래를 부르던 권원한은 진정한 태양의 노래를 부르는 할아버지 예술인의 대오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게 되었다.

1951년 4월 권원한은 또다시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5.1절경축공연에 참가하여 독창을 불렀다.

그가 노래를 마치자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시며 부판을 시켜 자신께서 받으셨던 꽃다발을 그에게 가져다주게 하시었다.

같은 영광에 몸둘바를 몰라하며 권원한은 꽃다발을 가슴에 안은채 그이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다음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권원한을 비롯한 예술인들을 연회장으로 불러주시고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있는가, 구장은 언제쯤이 오는가고 따듯이 물어주시

었다.

그러시면서 권원한에게 동무가 어찌 《고향의 어머니》를 부를 때 자신께서도 몹시 감동되어 돌아가신 어머니생각을 했다고 추억깊이 교시하시었다.

이 회사가 끝나자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다시금 권원한을 찾으시어 너가수의 지난날과 가정형편에 대하여 하나하나 료해하시었다.

13살에 성악콩쿨에 참가했던 일이며 서울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무대생활을 하던 이야기 등을 그의 길게 들어주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아버지가 절들에게 무참히 학살되었다는 사연을 아시고는 안색을 흐리시며 나라를 위해 잘 싸운 가정이며 나라를 동무도 애국의 심정을 안고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힘을 주시었다.

평범한 가수의 가정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다정한 사랑에 권원한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그후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권원한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다급한 정황속에서 가족을 데려오지 못하였다는것을 아시고 인민군소조를 과격하도록 해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권원한의 가족들도 공화국의 따뜻한 품에 안기게 되었다.

그는 1951년 7월 베를린에서 진행된 제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 그의 독창을 들으시고 노래에서는 권원한동무가 확실한 판목이 있다고 하시면서 민족가극도 많이 했고 다른 나라의 가극과 노래도 한것만 큼 축전기간에 그를 내세워 우리 나라 민족예술을 널리 소개하는것이 좋겠다고 깊은 은 심음을 또다시 안겨주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주체47(1958)년 10월 어느 날 아버지수령님께서 권원한이 부른 노래를 들으시고



권원한독창회의 한 장면(2000년 11월)